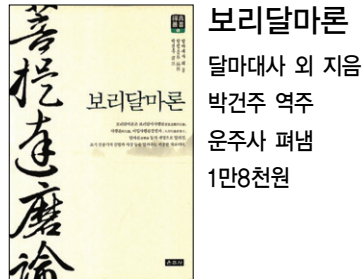


흩어져 있던 잔본 모아 복원한 초기 선법 논서



보리달마론
달마대사 외 지음
박건주 역주
운주사 펴냄
1만8천원

보리달마를 비롯한 초기 선종 선사들의 법문과 어록을 통해 초기 선종의 선법과 활동을 알려주는 논서다.

약 1세기 전 동황의 막고굴에서 발견된 백여 종에 이르는 선종 관련 법문들의 소개에 의해 그간 가장 알려지지 않았던 초기 선종 시기의 자료들을 다수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초기 선종 시기에도 달마대사의 친설을 중심으로 4조 이전까지의 법문 내지 어록이 가장 희소한다. 그 부분을 때우어 줄 수 있는 자료가 (이입사행론전권자)로 가명(假名)되어 전해지는 자료였다. 현재까지 동황출토 사본으로 9종이 전해지고 있는데 모두 잔본(殘本)이어서 완본이 되지 못했지만 9종을 합하여 보완하면 완본에 가까운 상태가 된다. 책은 9종의 잔본들을 비교 대조하여 완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 우리말로 옮기고 해설했다.

보리달마로 시작된 중국 선불교는 육조 혜능과 그 문하들을 거치면서 중국불교의 가장 큰 흐름이 되었다. 한국불교 역시 역대 선불교, 특히 간화선이 그 주류의 위치를 점해왔으며, 작금에 이르러서는 선의 전통을 가장 온전히 전해오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흔히 선의 종지를 '불립문자 교외별전', '직지인심 경성성불'이라고 말하지만, 초기 선종의 기본 가르침은 '자교오종(藉教悟宗)'이라고 전해진다. 교에 의지하여 종을 깨닫게 하는, 즉 교(教)를 통해 이법(理法)을 요지해 들어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다.

고려 때 첫 출간되어 이조 세조 천순8년(1464년)에 간경도감의 지시로 전북 남원에서 복간된 이른바 <천순본(天順本)>이 (보리달마사행론)의 제명(題名)으로 일본 천리대 도서관에 소장되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모든 본 가운데 최상의 본임이 1996년에야 비로소 알려졌다. 이 <천순본>의 존재가 그 이전에 알려져 있었지만 1908년 경허성우 스님이 편찬한 <선문활요(법외사판)>에 (사행론)의 제명으로 수록된 이른바 <선문활요본>과 같은 본으로 인식되어 활용되지 못했던 것인데, 양자를 대조해본 결과 후자는(천순본)의 앞부분(약 2/3)을 발췌한 것임을 알게 된 것이다. 여러 면에서 (천순본)이 최상의 본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러 동황본에 비해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도 더러 있다. 역자는 여러 동황본들을 대조, 정리한 연구 성과가 반영된 본과 (천순본)을 함께 저본으로 하여 역주, 해설했다.



은부암 달마상

<보리달마론>은 (보리달마사행론) (사행론), (이입사행론전권자), (달마론) 등의 제목으로 알려진, 초기 선종기의 선법과 사사 등을 알려준다. 보리달마의 제자인 담림이 스승인 달마대사의 어록을 정리하여 편집한 (달마론)에, 후대의 초기 선사들의 어록 문답을 추가한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 자료가 드물어 거의 공백 상태로 인식되어 온 2조 혜가에서 5조 홍인 이전까지 달마 문화 초기 선종 선사들의 선법과 활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책은 정설본과 유통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정설본은 달마친설에 해당하고, 유통본은 그 제자들의 어록(문답)에 해당한다. 달마의 대표적 친설로 전해져 온 (이입사행론)을 비롯하여 새로 알게 된 (달마어록)과, 2조 혜가와 담림을 비롯한 5조 이전 초기 선사 약 30여 명의 법문과 어록이 수록되어 있다. 5조 홍인의 어록은 단 한 곳이 있고, 대부분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선사들이 대부분이다.

한편으로, 법문이나 어록들이 주로 인용하거나 의거하고 있는 경론은 <능가경>, <유마경>, <반야경>, <제법무행경>, <열반경>, <금강경> 등으로, 이들 경전이 초기 선종에서 중요시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초기 선종 연구에 전착하고 있는 역자는 그동안 제명만 전하고 완본이 없던 이 논서를 9종의 사본들을 비교 대조하여 완본에 가까운 형태로 복원해냈을 뿐만 아니라 간결하면서도 명료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서 초기 선종의 선지를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다.

박재원 기자 wanihollo@hyunbul.com

▲역자 박건주는
전남 목포 출생. 전남대 사학과, 동 대학원 석사. 성균관대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성균관대, 순천대, 목포대, 조선대에 출강했고, 현재는 전남대 강사, 동국대 동국역경원 역경위원,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와 호남불교문화연구소 연구이사다.
저서는 <중국 초기선종 능가선법연구>, (달마선), <중국고대사회의 법률> 등이 있고, 역서는 <능가경 역주> (능가사자기), <철관론역주>, <북종선법문-동황문헌 역주> 등이 있다.

禪의 안목으로 본 <금강경>

존재를 삼켜 허공을 뿔아라
-금강경 묘해

묘봉 윤록 지음 | 비움과 소통 펴냄 | 2만8천원



<금강경> 본문에 대한 주석(註釋)을 달고 선(禪)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견해를 개승 형식으로 드러낸 금강경 수행지침서이다. 그리고 금강경의 한문 및 영문 원문을 한글로 번역하고, 이를 다시 해설하여 중요한 부분을 다시 영역한 漢·英·韓 금강경 해설서이기도 하다.

<금강경>은 <금강반야바라밀경>을 줄인 것으로, 여러 가지 한역본이 있다. 4책 16회에 걸쳐 설한 반야부 600권 중 제2처 제9회 제547권에 해당한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에서 수보리 등을 위해 객관적 경계가 공(空)함을 설하고, 혜(慧)도 또한 공함을 보이며, 보살의 6바라밀도 모두 공함을 밝히고 있다. 공공혜(空空慧)로서 체(體)를 삼고 무상으로 종을 삼아 일체법이 무아임을 설하고 있다. 예부터 이 경을 수지독송하는 이가 많았을 뿐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주석한 것이 무려 2천여 종에 달한다. 반야 계통의 대표적 경전으로 <반야심경> 다음으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다. 특히 선종에서는 달마로부터 4조 도신에 이르기까지 <능가경>을 소의경전으로 삼았는데, 5조 홍인 대사가 소의경전을 <금강

경>으로 바꾸면서 중시하게 됐다. <육조단경>에 따르면 6조 혜능은 홍인에게서 이 경전의 강의를 듣다가 "마땅히 머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구절에서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금강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여 어느 것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고 무엇이냐 깨뜨릴 수 있는 금속을, 반야는 일체의 분별상을 넘어선 지혜를, 바라밀다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곧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의 완성을 추구하는 경전이라는 뜻이다. 경전의 성립시기는 그 내용에 있어서 대승이라거나 소승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 공사상을 해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공'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대승불교 중에서도 아직 대승과 소승의 대립관념이 발생하지 않은 최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일체의 대상에 대하여 상에 집착하지 말고 공한 이치를 깨달아 깨달음은 대로 실천하면 그 복이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저자는 금강경에 대한 선적(禪的) 송주(頌注)를 통한 해설을 "화장 끝내고 다시 분칠한 격"이라 자평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대로가 깨달음이기 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형식으로 사족을 달았다고 밝히고 있다.

덕송총림 수덕사 초대 방장을 지낸 혜암(惠庵) 대선사로부터 인가(認可)를 받아 계룡산 신원사, 남해 백련암, 서울 화계사 등에서 조사선(祖師禪)을 지도

해 온 묘봉 스님은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와 달리 철저하게 독자적인 견해를 담아 참선 수행자들이 금강경을 통해 선(禪)의 진수를 터득하도록, 비록 난해하지만, 금강경의 핵심을 담은 해설을 시도했다.

저자에 따르면, '무(無)'가 금강경의 종지(宗旨)로 되었다. 그리하여 자세히 묻고자, 알고자 하면 할수록 격외(格外)의 일구(一畝)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니 마음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그 뜻을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개승 한 구절 한 구절이 하나의 화두(話頭)처럼 치밀하게 엮어진 해설들은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갇힌 우리의 패부를 찌르는, 때로는 꼭 막힌 은산철벽(銀山鐵壁)을 무너뜨리는 화(喝)와 방(棒)으로 고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힌 독자의 무명(無明)을 단박에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박재원 기자

▲저자 묘봉 윤록 스님은

1942생으로 수덕사에서 만공 스님 제자인 덕산(德山) 스님을 은사로 촉발하여 해의 포교를 하다 귀국해서 1984년 덕송총림 수덕사 초대 방장 혜암(惠庵) 스님으로부터 수법(受法)했다. 계룡산 신원사, 남해 백련암, 서울 화계사 등에서 주석하며 외국 스님과 신도들을 제정하여 호응을 받았으며, 현재 공주 감사에 주석하며 수행정진 하고 있다. 저서에는 <철학의 파멸>, <천수경 이밧고>, <눈 없는 돌사람이 글자 없는 책을 읽는다>, <선문활요>, <육조 법보단경>, <조사선(조로)의 길>, <무엇이 그대의 본래 얼굴인가>, <The Cookies of Zen> 등이 있다.

스트레스는 요가로...

오피스 요가 매뉴얼

줄리 프리드버거 지음 | 김재민 옮김 | 여래 펴냄 | 1만3천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책상에서 일한다. 또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생활한다. 책은 그렇게 책상에서 많은 시간을 일하며 스트레스와 씨워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으로서, 요가의 기본적 동작 몇 가지와 주요 원칙들을 직장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요가는 자세와 호흡을 가다듬어 정신을 통일, 순화시키고, 또는 초자연력을 얻고자 행하는 인도 고유의 수행법이다.

요가란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결합한다는 어원(語源)인 유즈(yuj)에서 시작되었으며, 마음을 긴장시켜 어떤 특정한 목적에 상응(相應) 또는 합일(合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인도에서는 당시의 모든 학파들이 그 실천방법으로서 요가를 수련했다.

인도에서 요가의 기원은 6,000~7,000년 전의 인더스문명 시대까지 올라가며, 그 수행법(修行法)은

인도 아리안 종교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고대의 바라문교나 불교에서도 요가를 실천했다.

책은 요가에 기초한 간단한 동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직장생활의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를 보는 동안 책상 앞에서 몇 분씩 수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 작가, 설계사, 디자이너 등과 같이 장시간 앉아서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있는 자제로 운동할 없는 사람들도 이 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용상으로는 '앉아서 하는 동작', '서서하는 동작', 그리고 '호흡'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책이 기존의 책들과 많이 다른 것은 무엇보다도 실용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의미의 요가 사상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책은 인간에게는 단지 '물질적 육체'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기(氣)와 마음, 의식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신체'가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 요가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심철학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가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응용하고 있다.

또한 요가에 대한 경험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도 책의 장점이다.

박재원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8/7 ~ 8/13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2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영화
3	깨달음	법륜	정토출판
4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애펜파커스
5	이 길의 끝에서 자유에 이르기를	원택	조계종출판사
6	그런 내 부처가 아니다	서암	정토출판
7	이해하고 내려놓기(팔정도)	일묵	공리
8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너울북
9	우리 모두는 부처다(불교의 내기진리) 3부작 2권	정재	평생
10	이것이 간화선이다	무비	민족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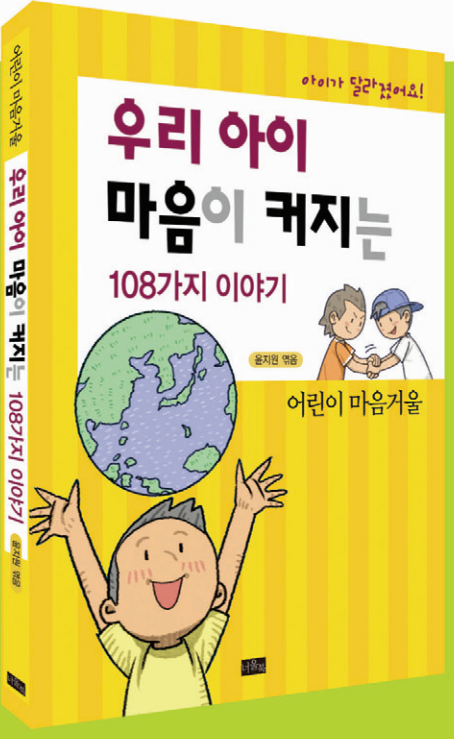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밝은 마음, 건강한 사고방식, 따뜻한 정서로 이끌어주는 가르침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권장 도서!



어린이 마음거울
우리 아이 마음이 커지는
108가지 이야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과 생활의 지혜, 주위에 대한 배려심이
속속 자라나는 이야기와 예화!

어린이 선물용



윤지원 역음/사륙배판/울컬러/16,000원



올바른 자아의식과 풍부한 감성, 건강한 인생관을 확립하여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야기와 예화!

중고생 선물용

청소년 마음거울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108가지 이야기



윤지원 역음/사륙배판/울컬러/16,000원